

프랑스 초등학교 읽기교육과 시립도서관



나은주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정보담당관
carrenej@gmail.com

지난 호에는 전문 학술 정보담당관으로서 몸 담고 있는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서비스의 협력양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 호에서는 분위기를 바꿔서 좀 더 일반적인 사회 양상으로서의 도서관을 이야기해 볼까 한다. 도서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기가 되었던 두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소개해야겠다.

지난 해 9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프랑스 학교에서는 매달 그 달에 생일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 같이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는데 해당되는 아이의 엄마가 생일 케익을 만들어 가는 관습이 있다. 9월 1일생인 우리 아이는 생일을 맞이함과 동시에 새 학년을 시작해야 했고, 따라서 나는 아직 학교의 구조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생일 케익을 들고 가야 했다. 건물 입구에서 만난 담임 선생님께 ‘어디에 갖다 놓을까요?’ 하니까 ‘도서실에 놔주세요’ 하신다. 교실 옆에 도서실이 있나보다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니 옆만 선생님이 어디를 찾느냐고 하신다. ‘도서실을 찾는데요’ 하니까 ‘도서실 없는데요’ 하신다. ‘도서실에 놔달라고 했는데 도서실이 없다니 무슨 말인가?’ 하며 당황했으나 곧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프랑스 초등학교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서고와 사서 선생님이 상주하는 도서관은 없고, 각 교실마다 한 쪽에 책을 전시하고 편안한 유아용 소파나 방석 등을 배치해서 아이들이 편히 쉬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아기자기한 공간이 있다. 내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실’은 바로 교실 뒷편에 마련된 이 공간을 일컫는 것이었다.

긴장된 신학년 초 2달이 지나고 10월 말 11월 초에 10일간의 첫 방학을 보낸 후 학교에 갔다온 아이가 책을 꺼내 놓으며 “진짜 책”이라고 자랑스러워한다. 시립도서관인이 찍힌 책이었다. 책은 20여쪽 남짓되는 그림책으로 한 쪽 당 한 두 문장이 있고 같은 문장들이 거의 매 쪽마다 반복되는 이야기 책이다. 아이

* 나은주 사서의 글은 7월 호에 게재된 “프랑스 인문사회 과학 전문도서관 상호 협력 사례”에 이어 이번 호에는 “프랑스 초등학교 읽기 교육과 시립도서관”을 게재한다.

는 그 책을 들고 혼자 읽을 수 있다며 매우 뿌듯해 한다. 물론 그 당시 학교의 학습진도 수준은 알파벳 글자와 발음을 하나씩 익히는 단계였다. 아이는 비슷한 종류의 책을 일주일 단위로 새로 바꿔왔고, 그때마다 아주 자랑스럽게 내게 읽어주곤 했다. 그리고 매번 읽은 책에 대해서는 아이의 이름이 적힌 커다란 표에 책의 제목을 쓰고 그 옆에 '아주 좋았다', '좋았다', '싫었다'로 평가를 했다.

본인의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위에 소개한 경험을 하면서 참 흥미로운 '도서관'의 개념이자 이용방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이번 원고 청탁을 받고 나서 관계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들으면 더 유용할 것이란 생각에 인터뷰를 청했고 모두 기꺼이 협조해주셨다.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프랑스의 초등학교의 읽기 교육과 도서관의 이용 양상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내가 사는 도시 앙토니(Antony)는 파리 남쪽 근교에 위치한 도시다. 앙토니 도시에 시립도서관 본관이 있고 분관이 두 군데 있으며, 그 곳을 서로 연결하는 도서관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매년 학년 초에 모든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도서관 방문 신청서 양식을 보낸다. 선생님들은 각자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일년 동안 한 차례 견학 방문부터 4차례 정기 방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이들이 도서관을 방문할 때는 다른 외출 때와 마찬가지로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동반요청을 하고 희망 학부모들이 한 두 사람 정도 따라가서 아이들 인솔을 돕는다. 내 아이의 반은 학년 말인 5월 초에 도서관 견학 방문을 했고 나는 기꺼이 동반을 청했다.

아이들이라도 도서관에서 떠들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다. 첫 견학방문 때 도서관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주의를 받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많은 도서관을 방문해 보지는 못했으나 규모가 작지 않은 구립도서관의 어린이실은 책이 있다는 것만 놀이방과 다를 뿐 여느 놀이방 못지 않게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 하거나 뛰어다니는 것이 예사로 여겨지는 것을 보며 '아이들이라 통제가 불가능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공공장소에서 지킬 규범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같은 건물 이층에 있는 어린이실로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던 사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맞이한다. 아이들에게 도서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엇이 있는 곳인지 아이들의 대답을 유도하며 어느 곳에 어떤 책들이 어떻게 정리되어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준다. 도서관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한 쪽에 마련된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방이다. 그 곳에는 작은 비디오, 오



■도서관 소개를 하는 앙트완 랭베르(Antoine Rimbert)씨 모습



■책 읽는 방 입구

디오와 함께 조그마한 소파와 의자들이 있다. 그곳에서 사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은 견학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 어린이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 밖에도 도서관에서는 읽은 책의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드는 아틀리에가 있는데 방학 때는 특별 주제를 선정해 방학 아틀리에를 운영한다.



■퀴즈경연 참가자용 테이블



■퀴즈경연 안내문



■퀴즈경연 참여자 코너



■퀴즈경연 응모상자

또 한가지 어린이실의 상설 프로그램은 퀴즈 경연이다. 정해진 질문지에 어린이실 내에 있는 여러 자료들에서 찾아서 정답을 적어 넣고 입구에 마련된 상자에 넣어 응모하면 나중에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중반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기획전시의 주제인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 대한 퀴즈 경연이 진행 중이었다.

도서관에서는 일년에 한 두 차례 테마를 선정해 전시회를 기획한다. 기획 전시는 어린이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도서관 차원에서 하는 행사로 도서관 입구에 전시실이 마련되어있고 어린이실에도 관련된 물건이나 책등을 전시한다.

책 읽기가 끝나고 방에서 나온 아이들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둘러보며 빌려가고 싶은 책을 한 권씩 고른다. 학년 말이라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미 글을 깨치고 책을 읽기 시작하였으므로 아이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동물책, 스포츠 책 등 사서 선생님께 물어봐가며 자유롭게 고른다. 아이들이 고른 책들은 담임 선생님의 이름으로 대출되고 담임 선생님은 그 책을 관리하기 위해 학교에 돌아가서 따로 리스트를 만든다.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이 책을 고르는 동안 아이들 숫자만큼 똑같은 책을 대출한다. 글자가 많이 없는 책을 여러 권 돌려서 읽게 하던 학년 초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이제는 아이들이 읽을 수 있으니 모두 같은 책을 읽으면서 여러가지 게임을 할거라고 하신다.



■도서관실 입구 기획전시장





■어린이도서관 전시

이제 학년 초에 나의 흥미를 끌었던 담임 선생님의 독특한 도서관 이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자. 학년초 학부모 회의에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읽기 교육을 위해 선택한 교재를 소개하다가 “우리 어른들도 사실 교과서를 읽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며 웃으시던 기억이 난다. 선생님이 선택한 교재는 앨범이라고 불리는 작은 이야기 책 9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앨범들은 각각 얇은 이야기 책 단행본으로도 시중에 나와 있다. 글을 배우는 것은 글자를 해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담긴 이야기, 즉 책을 읽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 관점을 볼 수 있다.

11월 초 첫 방학 직후 아직 글을 다 못깨친 아이들에게 도서관에서 빌려온 “진짜 책”을 돌려가며 읽게 하는 목적은 읽기 교육과 책의 개념, 학교와 도서관의 이미지를 하나로 아이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

선생님은 우선 도서관에서 오렌지 표식이 붙은 책들, 즉 텍스트가 가장 적은 책들을 아이들 수만큼 대출한다. 그다음 학교에서 하는 작업은 우선 아이들에게 책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인데 아이들 각자가 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다음은 아이들을 ‘작은 독서가’, ‘중간 독서가’, ‘큰 독서가’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벽보 세 개를 만든다. 각 벽보에는 아이들의 이름과 빌려간 책의 제목을 적는 칸이 있다. 아이들은 책을 한 권씩 골라서 가져가고 벽보에는 자기 이름 옆에 읽은 책의 제목을 적고 책을 다시 가져 왔는지 표시한다. 아이들은 또 각각 개별 독서표를 가지고 있어서 읽은 책의 제목을 쓰고 그 옆에 책을 읽고 난 느낌을 ‘나는 이 책이 ‘아주 좋았다’, ‘조금 좋았다’, ‘안 좋았다’ 로 표시하게 되어있다. 다 읽은 책은 다시 가져가 교실 벽보에 ‘반납’ 표시를 하고나서 다른 책을 또 빌려갈 수 있다. 일주일에 한 권정도가 평균 리듬이지만 반납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아이들의 리듬에 따라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1월초 성탄절 방학이 지난 후에는 도서관에서 노란색 표식이 있는 책, 텍스트가 조금 더 많이 있는 책을 대출하여 마찬가지로 진행한다. 성탄 방학이 지날 때쯤이면 많은 아이들이 글을 깨치고 읽기 시작하며 그 중에는 기적처럼 아주 빠르고 쉽게 책을 읽어 내리는 아이들도 등장한다. 그래서 봄에 학년말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책을 읽게 되므로 이번에 선생님은 똑같은 책을 아이들 수만큼 빌려다 수업시간에 같이 읽으며 ‘문학놀이’를 하고 아이들이 독자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견학 지도를 한다.



■앨범을 가지고 한 작업

내가 초등학교 읽기교육용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러한 방식을 흥미롭다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독특하다는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내 아이의 반응이었다. 도서관에서 대출받은 책을 받아오면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엄마의 도움을 거부하며 혼자서 열심히 “진짜 책”을 읽는다, 아니 내게 읽어준다. 지금까지는 엄마가 읽어주던 이야기를 듣기만하던 입장에서 엄마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아이는 매우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었다. 아이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려 하던 담임 선생님의 목표가 완전히 적중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셈이다. 이런 방식이 초등학교 일학년 교과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모두가 행하는 방식은 아니고 당신의 개인적인 방식이라며 다른 선생님들은 또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들이 있을 것이라며 겸손해 하신다.



■ 책을 읽어주는 담임 선생님 이자벨 롤랑(Isabelle Rolland) 씨 모습



■ 교실전경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초등학교의 도서공간에 대해 조금 덧붙여야 할 것 같다. 학교 교실 내의 작은 도서실은 이미 유치원 때 부터 있다. 유치원은 더욱이 교실 내에 각종 장난감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 도서 공간도 놀이 테마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장난감들은 다 사라진 초등학교 교실에도 이 도서 공간은 계속 된다. 평범한 교실의 뒷편에 책이 몇 권 꽂힌 작은 책꽂이와 그 옆에 작은 소파가 전부다. 아이들에게 이 공간은 휴식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교실의 도서 공간은 아이들에게 도서실이라는 대상을 책이 아주 많이 있고 멀리 있는 부담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편안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까운 공간이 되게 해준다. (☺)

■ 교실의 도서공간



※ 필자 주 : 본고 작성을 위해 인터뷰에 가까이 임해 주신 두 분, 앙토니시립 도서관(Bibliothque municipale d'Antony)의 앙트완 랭베르(Antoine Rimbart) 씨와 생트마리(성모 마리아) 초등학교(Ecole de l'Institut Sainte Marie) 교사 이자벨 롤랑(Isabelle Rolland) 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웹진

KRILizine 38호



.....

2009년 6월 38호 KRILizine의 핵심 콘텐츠는

- ▶ **최신동향** : 웹진 38호 최신동향은 세계 많은 대학 및 연구도서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기관 리포지토리’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관 리포지토리 구축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학 및 연구도서관이 앞으로 기관 리포지토리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미래 도서관 서비스의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 **정책자료** : 웹진 38호는 37호에서 시작된 ‘리포지토리의 연구 데이터를 위한 정책결정 지침②’로써 메타데이터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리포지토리에 포함되는 콘텐츠는 다양한 유형의 메타데이터를 가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확고한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들을 살펴본다.
- ▶ **도서관로의 여행기 및 출장기** : 웹진 38호에서는 밀라노의 아비아테그라스 공공도서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은 12세기에 만들어진 오래된 성 비스콘데오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유명한 곳이다. 도서관 자체도 10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 ▶ **기타 콘텐츠** : 주요국 도서관법, 현장우수사례, 도서관 용어해설, 출판물 소개, 통계로 보는 도서관,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 갱신정보 등

도서관연구소 웹진은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웹진에서 간단한 이메일 입력만으로 무료 신청이 가능하며 도서관연구소 웹사이트(<http://www.nl.go.kr/krili/>)에서도 웹진 각화와 웹진 기사들을 볼 수 있다.